

노래와 공연

이 보 형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

1. 머리말

2. 노래

- 가. 농사짓기소리〔農謠〕
- 나. 장례치르기소리〔晚歌〕
- 다. 지경다지기소리

3. 두레와 두레잡이

- 가. 두레
- 나. 농기와 기물
- 다. 두레잡이
- 라. 호미걸이

4. 잭이〔農樂〕

- 가. 마당놀이(마당밧이)
- 나. 두레잡이와 호미걸이
- 다. 잭이가락(농악가락)

5. 놀이패〔演戲集團〕

- 가. 걸립패(乞粒牌)
- 나. 남사당패(男社黨牌)
- 다. 광대패(廣大牌)
- 라. 굿중패

1. 머리말

일산지역에 전승되었던 노래에는 일하기소리[勞動謠]가 가장 많이 불리워졌고 일하기소리 가운데는 일산지역이 벼농사를 주로 짓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김매기소리를 유독히 많이 불렀던 것 같다. 또 장례치르기소리[晚歌]가 많이 불리워졌던 것 같다. 주민들이 놀기 좋아하는 성품을 지닌데다가 거리낌 없이 즐기는 문화를 담아 온 탓에 노는 자리에서는 유독히 잡가(雜歌) 따위를 많이 불렀고 이 밖에 아이 다루기소리도 더러 불렀던 것 같다. 굿하기소리(巫歌)도 많이 불리워졌고 매우 드물게 걸립패(乞粒牌) 고사염불(告祀念佛)도 불리워졌다 한다. 이 지역에서는 농악(農樂)을 '잡이'라 하여 많이 쳤고 따로 피리나 호적(胡笛)을 불며 놀기도 하였다 한다. 주민들은 명절에 난장을 벌이며 많은 놀이패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철 따라 걸립패나 남사당패와 같은 떠돌이 놀이패가 찾아와 놀음을 벌이기도 하였다 한다. 그리고 보면 일산지역의 대표적인 노래는 김매기소리라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연희(演戲)는 농악[잡이]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사를 도와 주신 제보자들은 아래와 같다.

〈1〉 장선훈(張璇煥: 男 79세 甲寅生) 1909년생.

현주소: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행신6리.

출생지: 경기도 일산읍 백석리.

농군, 소리꾼.

〈2〉 김현규(金鉉圭: 男 51세 壬午生) 1942년생

현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85.

출생지: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1654.

소리꾼, 상쇠.

〈3〉 강일만(姜一萬: 男 59세 癸酉生) 1935년생.

현주소: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토당7리.

출생지: 경기도 고양군 알산읍 백석4리.

농군

〈4〉 백석 노인당 노인들

(이하에서 제보자는 약하여 〈1〉, 〈2〉, 〈3〉, 〈4〉 등으로 표기할 것임)

2. 노래 (歌謠)

일산지역 주민들이 부르던 일하기소리[勞動謠]에는 농사짓기소리[農謠]가 가장 많고 다음이 장례 치르는 소리이며 지경다지기소리도 많이 불렀다 한다.

가. 농사짓기소리 [農謠]

일산지역 주민들이 부르던 농사짓기소리에는 물두레질소리, 모심기소리, 김매기소리가 있는데 일산지역이 벼농사 고장인 만큼 이 가운데 김매기소리가 가장 성창(盛唱)되었다 한다.〈2〉

(1) 물두레질소리

농사철에 농군들이 물두레로 논에 물을 퍼 올리며 부르는 소리이다. 일산지역에서는 맞두레 보다 용두레를 많이 썼다 한다. 웅덩이나 개울에서 푸기도 하지만 농지 정리가 안되었던 시절에는 한강으로 흐르는 개울을 겨울에 막아서 보를 만들고 그 봇물을 퍼올려 모를 심고 장마철이 다가 오면 보를 터서 미리 범람을 막았다 한다. 물 고인 곳에 가늘고 긴 나무로 만든 가래나무를 작수목으로 세우고 여기에 끈을 달아 용두레를 걸고 두레질하기도 하고 맞두레에 끈을 양편에 달아서 두 사람이 갈라 잡고 맞두레질을 하기도 하였다. 농군들은 이 단순한 작업에 지루하기 때문에 '하나 둘' 하고 수를 세며 물두레질을 하는데 이것도 지루하니 소리에 없어서 수를 세는 것이 '물두레질소리'라는 것이다.〈1〉

(2) 모내기소리[열소리]

일산지역에서 지금은 이앙기(移秧機)로 모를 심고 있고 근래에는 줄모를 심었으나 줄모는 일정 말엽에 생긴 것이고 옛날에는 '마늘모'를 심었다 한다. 마늘모라는 것은 사람마다 적당한 간격으로 한 쪽에서부터 층층이 모를 심어 나가는 것이라 한다. 농군들이 아침 일찍 모판에서 모를 찢고 모를 심는데 모심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모심기소리를 부른다고 한다.〈2〉 모심기소리 노랫말은 '하나 둘' 하고 수를 세는 것인데 열까지 세고 나서

다시 ‘하나 둘’ 하고 수를 세기 때문에 이 소리를 ‘열소리’라 한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메기면 또 한사람이 받았던 것이나 일제 때 줄모가 생기면서 두서너 패를 지어서 한 패가 소리를 메기면 다른 패가 받았다 한다. 일산지역 모심기소리에는 긴소리와 자진소리가 있다.〈1×3〉 ‘긴소리’는 먼저 느릿느릿 부르는 소리이다. 한사람이 “열이로 하나 하나이나 둘” 하고 메기면 다른 사람이 “둘이로 셋이나 넷”하고 받는다. 이렇게 열까지 부르고 나서 자진 소리로 다시 “하나”부터 시작한다. 긴열소리는 일정한 장단이 없고 자유 리듬에 가깝게 부른다.

〈한 사람〉 열이로 하나 하나이나 둘
 〈다른 사람〉 둘 둘 셋이로구나 넷
 〈한 사람〉 네이라 다섯 다섯이나 여섯
 〈다른 사람〉 여섯이나 일곱 일곱이나 여덟
 〈한 사람〉 여덟 아홉 아홉이나 열

‘긴열소리’의 선율은 구성음이 라(re), 마(mi), 사(sol), 가(la), 다(do)로 되어 있고 라(re)로 종지(終止)하고 다(do)에서 퇴성(退聲)하고 가(la)에서 떠는 추심가(愁心歌)토리로 되어 있고 선율형태(旋律形態)는 비고정선율(非固定旋律)로 되어 있다. 이 소리는 곳곳하고 처량한 느낌을 준다.〈악보1-1〉

‘긴소리’로 한마루를 부르고 나면 자진소리로 넘어간다. 자진소리의 장단은 3분박(分拍) 좀 느린 4박자(8분의 12박자)로 굵거리 장단에 맞는다. 한 사람이 굵거리 두 장단에 “열 열 열에 열이로구나 하나” 하고 메기면 다른 사람이 두 장단에 “하나 하나 하나이로구나 둘”하고 받는다.

〈한 사람〉 열 열 열에 열이로구나 하나
 〈다른 사람〉 하나 하나 하나 허구두 둘일세
 〈한 사람〉 둘 둘 둘에 둘 심었다 셋
 〈다른 사람〉 셋이로다 셋은 셋 허구두 넷 심었네

‘하나 둘’하고 수를 세는 것은 일정하지만 노랫말은 그때 그때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 것 같다. 자진소리도 긴소리의 경우와 같이 수심가토리로 되어 있는데 긴소리에 견주어 보다 선율이 고정성이 강하다. 이 소리는

화창하고 구성진 느낌을 준다.〈악보1-2〉

(3) 김매기소리

김매기소리 부르는 두레꾼들의 행위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아침참과 저녁참에 소리를 하는데 모갑(某甲)이가 북을 매고 등등 치며 소리를 메기고 두레꾼들은 김을 매며 소리를 받는다. 김현규(金鉉圭)의 구술(口述)과 실연(實演)에 의하면 두레를 제대로 갖춘 뱃개에서는 ‘긴소리’, ‘사두여’, ‘양산도’,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놀놀이’, ‘자진놀놀이’, ‘상사뒤야’, ‘우후야’, ‘몸돌이’ 순으로 제대로 갖추어 불렀던 것 같고 백석리를 비롯하여 다른 마을에서는 ‘긴소리’, ‘방아타령’, ‘상사뒤야’, ‘몸돌소리’, ‘우후야’로 약하여 부르는 것 같았다. 이 소리를 모두 기억하는 이는 뱃개 살았던 김현규뿐이며 백석리(白石里)에 살았던 장선환(張璇煥) 노인과 강일만(姜一萬) 노인은 긴소리는 더듬 더듬하고 ‘방아타령’, ‘상사뒤야’, ‘몸돌소리’, ‘우후야소리’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김현규에 의해서 채현되어 취입한 음반(뿌리깊은나무 팔도소리음반 경기도편)에는 ‘긴소리’, ‘사두여’, ‘양산도’, ‘방아타령’, ‘놀놀이’, ‘жат은 방아타령’, ‘상사도야’, ‘жат은 놀놀이’, ‘월월이’, ‘몸돌여’ 순으로 되어 있어 이번 조사와 약간 부르는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다.

(가) 긴소리

일산지역 김매기소리에서 맨 먼저 불리워지는 소리가 ‘긴소리’이다. 이 소리를 제대로 부르는 이는 대화리에 살던 김현규 밖에는 드문 것 같다. 백석리 노인들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다. 김매 때 이 소리를 부르기 전에 모갑이는 “이편 저편 좌우편 군방님네”하고 소리 치르는데 이것을 ‘군말’이라 이른다. 그러면 두레꾼들이 “예이”하고 큰 소리로 대답한다. 그러면 모갑이는 다시 “자, 오늘 날두 선선허구 김도 땀 만허구 이 집이 떡쌀이 세 가마, 서 말, 석 되, 서 홉, 서 작이니 옛날 옛적 젃날 젃적 떠꺼머리 총각적 현 패래 고래적 나무 접시 맛있을 적에 노인네 허든 두레소리나 우럭우럭 해봅시다”하고 군말하면 두레꾼들은 “예이”하고 대답한다. 소리꾼들이 소리하기 앞서 이렇게 군말을 하는 것은 김매기소리 말고도 달구질소리와 같은 다른 소리에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경기도 북부 다른 고장에서도 더러 보인다. 모갑이는 북을 어깨에 매고 등등 치면서 먼저 “에 에히에……” 하고 입타령으로 된 후렴을 매기면 두레꾼들이 그대로 받고 모갑이는 선소리를 매기고 두레꾼들은 입타령으로 뒷소리를 받는데 두 패로 나누어서 받는다고 한다. 한 패가 일어서서 뒷소리를 받으면 다른 패는 김을 매고 모갑이가 선소리를 매기면 두패가 모두 일제히 김을 매고 다음 뒷소리는 다른 패가 일어나서 받고 한 패는 김을 매었다고 한다.

이 소리는 대체로 3분박 좀 느린 4박자(8분의 12박자)로 굿거리 장단에 맞으나 박이 드나드는 데가 많아서 불규칙하다. 굿거리 8장단쯤 매기고 그 길이만큼 받는다.

〈모갑이-군말〉 이편 저편 좌우편 군방님네에에에

〈두레꾼-대답〉 예이

〈모갑이-군말〉 자, 오늘 날두 선선허구 김도 땀 만허구 이집이 떡썰이 세 가마 서말 석 되서흙 서작이니 옛날 옛적 젓날 젓적 떠꺼머리 총각적 현 패래 고랫적 무접시 말 있을 적에 노인네 허든 두레소리나 우럭 우럭 해봅시다.

〈두레꾼-대답〉 예이

〈모갑이-선소리〉 에히에 에헤에 에헤에히에 에히에
헤에
허이 썩아아아 이 이히요요 오오오
오호오 오오오

〈한패-받는 소리〉 에히에 에헤에 에헤에히에 에히
에헤에
허이 썩아아아 이 이히요요 오오
오호호오 오오오

〈모갑이-메기는 소리〉 어떤 진절에 구름이 둥실 떴네

〈다른패-받는소리〉 에히에 에헤에 에헤에히에 에히
에헤에
허이 썩아아아 이 이히요요 오오오
오호오 오오오

〈모갑이-선소리〉 춘면을 느긋 깨여 죽장을 반개하니
정화는 작작한데 나는 나비 머무는듯
안류는 의의한데 성긴 내를 띄었어라.

전창에 들린 술을 이삼배 먹은 후에

호탕하여 미친 흥을

〈한패-받는소리〉 (위 뒷소리와 같음)

이 소리의 사설이 많이 채록되지 못하여 사설내용을 알 수 없다. 위에 든 제2절 사설은 12가사(歌詞) ‘춘면곡(春眠曲)’의 첫머리를 딴 것이다. 선율의 구성음(構成音)은 사(sol), 가(la), 다(do), 라(re), 마(mi)로 되어 있고 종지음(終止音)은 다(do)로 되어 있는 경토리(京調)로 되어 있다. 이 소리는 매우 장중하고 깨끗한 느낌을 준다.〈악보1-3〉(2)

(나) 사두여

긴소리에 이어서 ‘사두여’를 부른다. 이 소리 또한 김현규만이 부를 줄 안다. 긴소리를 부르다가 ‘사두여’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 싶으면 모갑이는 “에 에헤에 예이 에헤에리 사두여” 하고 ‘사두여’의 뒷소리를 매긴다. 농군들은 ‘사두여’로 넘어간 줄 알고 이를 그대로 받는다. 받는 법은 긴소리의 경우와 같다. 장단은 대체로 3분박 느린 4박자(8분의 12박자)로 굿거리 장단에 맞으나 가끔 늘어져서 불규칙하다. 굿거리 4장단~12장단 정도를 매기고 4장단 정도를 받는다.

〈모갑이〉 에 에헤에 예이에 에헤에리 사두여

〈농군들〉 에 에헤에 에히에 에헤에리 사두여

〈모갑이〉 사두여 소리가 또 넘어 갔구려

〈농군들〉 (위 받는 소리와 같음)

〈모갑이〉 진일범주 연리거하여 유시요도 월중환을

어워라 어워라하니 아심수처 자망기를

지국충 지국충 어사화로다

〈농군들〉 (위 받는 소리와 같음)

이 소리의 사설 또한 채록된 것이 많지 않아서 사설내용을 알 수 없다. 제2절은 12가사(歌詞) ‘어부사(漁夫詞)’에서 따온 것이다. 구성음과 종지음이 긴소리와 같은 경토리로 되어 있다. 역시 장중하고 씩씩하다.〈악보1-4〉(2).

(다) 양산도

사두여에 이어서 양산도를 부른다. ‘양산도’ 하면 서울민요 ‘양산도’를 연상하지만 지역마다 농요로 불리워지는 양산도가 따로 있다. 이것들은 얼마간 서울 ‘양산도’와 다르게 되어 있다. 일산지역 김매기소리의 ‘양산도’ 또한 서울의 것과 다른데, 서울 것이 3분박 느린 3박자(8분의 9박자)로 세마치 장단인데 전주어 일산지역의 것은 3분박 느린 4박자(8분의 12박자)로 굿거리장단에 맞는다. 선소리꾼이 4장단의 선소리를 메기면 농군들이 뒷소리를 받는다.

〈모잡이〉 에 에이에 에에에 에에에 에헤리 다아하아
 〈농군들〉 에 에이에 에에에 에에에 에헤리 다아하아
 〈모잡이〉 양덕 땡산 흐르는 물은 감돌아든다 부벽루
 로다.

〈농군들〉 (뒷소리 위와 같음)

〈모잡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이로
 다.

〈농군들〉 (뒷소리 위와 같음)

서울 소리꾼들의 양산도와 사설을 전주어 보면 메기는 소리는 같고 받는 소리는 다르다. 따라서 사설 내용은 잡가에서 흔히 보이는 산천경계나 인생사를 세련되게 묘사한 겨우가 많다. 이 소리는 ‘긴소리’의 경우와 같이 전형적인 경토리로 되어 있다. 구성지고 활기 있는 곡조이다.

(라) 방아타령

양산도 다음에 불리워지는 소리가 ‘방아타령’이다. 제목은 ‘방아타령’이나 방아 노동요(勞動謠)는 아니고 농요(農謠)이다. 이 소리는 양산도의 경우와 같이 서울소리꾼들의 ‘방아타령’과 사설이 같으나 곡조가 약간 다르다. 일산지역에서 김매기 방아타령은 가장 널리 불리워졌던지 김현규는 물론이고 백석리 등 다른 고장 노인들도 잘 부르고 있다. 메기고 받는 방식은 ‘긴소리’의 경우와 같다. 이 소리는 굿거리 장단에 맞는다. 모잡이가 4장단~8장단의 선소리를 메기면 농군들이 4장단의 뒷소리를 받는다. 백석리 노인들이 부른 방아타령은 뒷소리를 패를 가르지 않고 불렀다. 백석리 노인들이 부른

사설은 다음과 같다.〈1〉〈3〉〈4〉

〈모잡이〉 에헤 에헤야아 에이에헤 에헤야
 어야라 뒤야 어허야 에헤

〈농군들〉 에헤 에헤야아 에이에헤 에헤야
 어야라 뒤야 어허야 에헤

〈모잡이〉 옛다 뒤었구나 일락은 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 동녘에 에루아 저 달이 불췌아 온다.

〈농군들〉 (위 뒷소리와 같음)

〈모잡이〉 옛다 뒤었구나 어촌 바람 연신들에 한실박
 인 저 사공아
 순풍에 돛을 달고 강능 경포대로 에루와 달
 맞이 가자

〈농군들〉 (위 뒷소리와 같음)

〈모잡이〉 옛다 뒤었구나 팔만장안에 호걸남아 천리
 이정을 부타리고 팔도강신 유람혈제 집에
 그리워서 에루 못 하는구나

〈농군들〉 (위 뒷소리와 같음)

〈모잡이〉 옛다 뒤었구나 해 떨어지자 달 췌아 오니 연
 잎 깃잎은 소슬어지고
 연못에 금붕어 연당에 놓고 살찐 가무치는
 꼬리만 툭툭
 어여뵈 아가씨들은 동지 품에서 논다.

〈농군들〉 (위 뒷소리와 같음)

방아타령에서 다음 소리로 넘어 가고자 할 때에는 모잡이가 다음과 같이 선소리를 메긴다.

〈모잡이〉 옛다 뒤었구나 방아타령도 좋건마는 한 노
 래 가지고 긴 밤을 새라

또 다른 노래루다 에루화 이어를 보세

〈농군들〉 (위 뒷소리와 같음)

김현규가 부른 대화리 방아타령은 뒷소리를 두패로 나누어서 받았고 뒷소리 사설이 백석리 것과 다르다. 사설은 다음과 같다.〈2〉

〈모잡이〉 에헤 에헤여허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노니가 나누 나니가 네누 네나누 방아가 좋다

〈농군들〉 에헤 에헤여허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노니가 나누 나니가 네누 나니나 방아가 좋다
 〈모갑이〉 어두어차 좋았구나 이 방아가 웬 방아나
 아랫넉 웃넉엔 경상 방아 여주 이천 자차 방아
 통진 김포는 밀타리 방아
 날고 장천 쪼어도 헛 방아뿐이로구나
 〈농군들〉 에헤 에헤여허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화초밭에 학두루미 두 날개를 등당 치며
 짜른 목을 길게 늘어
 뚜루루루루루 허고 아주나 감돌아든다
 〈모갑이〉 용산 삼개 실버들나무 무엇을 주어서 길렀
 는지
 우줄 줄줄이 춤만 춘다
 좋구나 두엇구나 천안도 삼거리 능수나 버들
 제멋에 계워서 반춤을 추고
 젊은 과수는 에루와 반봇짐 싣다
 〈농군들〉 에헤 에헤여허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넋적질끈 소고 등은 우리나라 명창을 어디다
 두고
 어줄 어줄이 걸렸느냐
 〈모갑이〉 좋다 두엇구나 충청도 허구두 계룡산 밑에
 셋바구니를 옆에다 끼고 지신 캐는 저 처녀야
 너 사는 집이 어디드냐 나 사는 집은
 저 산 넘어 실안개 속에 초당 삼간을 쭉 비
 켜 놓고
 초가 일간이 소녀의 집이로소이다

사설의 내용은 서울소리꾼들의 ‘방아타령’ 처럼 화창한 산천경개를 노래하는 서정적인 것이 많다. 곡조는 모두 같고 ‘긴소리’의 경우와 같이 전형적인 경토리로 되어 있다. ‘양산도’와 같이 구성지고 씩씩하다.〈악보1-6〉

(마) 자진방아타령

대화리 김현규는 ‘방아타령’ 다음에 ‘자진 방아타령’을 불렀으나 백석리 노인들은 바로 ‘상사소리’로 넘어갔다. ‘자진방아타령’이라고는 하나 서울소리꾼들이 부르는 ‘자진방아타령’의 경우와 같이 한배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고 ‘긴방아타령’처럼 굿거리장단으로 한배가 같다. 모갑이가 4장단을 메기면 농군들이 6장단의 뒷소

리를 받는다.〈2〉

〈모갑이〉 뗏다 뗏다 새 새소리 뗏다
 에 에헤요호 에헤요호 에히여허 에헤야하
 어야라 어허야 에허리 뗏다
 〈농군들〉 뗏다 뗏다 새 새소리 뗏다
 에 에헤요호 에헤요호 에히여허 에헤야하
 어야라 어허야 에허리 뗏다
 〈모갑이〉 뗏다 뗏다 정월이라 대보름날에
 구머리 장군 긴코배기 액맥이 연이 뗏다
 〈농군들〉 뗏다 뗏다 새 새소리 뗏다
 에 에헤요호 에헤요호 에히여허 에헤야하
 어야라 어허야 에허리 뗏다

새, 연 등이 뗏다는 사설은 서울 ‘자진방아타령’과 같으나 좀 다르다. 선율의 구성음은 사(sol), 가(la), 다(do), 라(re), 마(mi)로 되어 있어 ‘긴소리’ 및 ‘긴방아타령’과 같으나 종지음이 사(sol)가 아니고 다(do)로 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매우 흥겹고 구성지다.〈악보1-7〉

(바) 놀놀이

백석리 노인들은 방아타령 다음에 바로 ‘닐닐닐 상사 뒤야’를 불렀지만 대화리 김현규는 그 사이에 ‘자진방아타령’과 ‘놀놀이’ 및 ‘자진놀놀이’를 불렀다. 놀놀이 곡조는 3분박 여늬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로 굿거리장단이나 중중모리장단에 맞는다. 모갑이가 2장단의 선소리를 메기면 농군들은 “놀놀놀 놀이 놀놀이 놀아”하고 뒷소리를 받는다.

〈모갑이〉 놀놀놀 놀이 놀놀이 놀아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이 놀아
 〈모갑이〉 놀놀이 소리는 엄청난 소릴세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이 놀아
 〈모갑이〉 심봉사의 거동을 보아라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이 놀아
 〈모갑이〉 굴관제복을 정리하고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이 놀아
 〈모갑이〉 상두 뒷채를 더 덤씩 안고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이 놀아

〈모갑이〉 여보 부인 내 말 좀 듣소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이 놀아
 〈모갑이〉 어린 심청을 어찌 하고
 〈농군들〉 놀놀놀 놀이 놀놀이 놀아

김현규가 부른 사설은 심청가에서 심봉사가 객씨부인 상여 따라 가며 탄식하는 내용이나 다른 사설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이 소리의 곡조도 ‘긴소리’나 ‘방아타령’의 경우와 같이 전형적인 경토리로 되어 있다. 흥겨운 느낌을 준다.〈악보1-8〉

(사) 자진 놀놀이

김현규는 ‘놀놀이’ 다음에 ‘자진 놀놀이’를 불렀다. 다른 고장에서는 이 소리를 부르는 이를 못 찾았다. 이 소리는 3분박 여너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로 자진모리장단에 맞는다. 선소리꾼이 4장단에 선소리를 메기면 농군들이 4장단에 “어어어 어허어야 널널널어리 저어허어야” 하고 뒷소리를 받는다.

〈모갑이〉 어어어 어허어야 널널널어리 저어허어야
 〈농군들〉 어어어 어허어야 널널널어리 저어허어야
 〈모갑이〉 어어어 어허어야 놀놀이 소래는 낭구꾼의
 소랴세
 〈농군들〉 어어어 어허어야 널널널어리 저어허어야
 〈모갑이〉 어어어 어허어야 가세가세 놀러를 가세
 〈농군들〉 어어어 어허어야 널널널어리 저어허어야
 〈모갑이〉 어어어 어허어야 뽕도 따고 임도 볼겸
 〈농군들〉 어어어 어허어야 널널널어리 저어허어야

이 사설에 ‘놀놀이 소리가 나무꾼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놀놀이 소리가 본디 나무꾼들이 부르던 소리였는지 알 길이 없다. 일산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나무꾼 소리가 없었다고 한다. 곡조는 그 구성음이 가(la), 다(do), 라(re), 마(mi)로 되어 있고 종지음은 가(la)로 되어 있어 일산지역 여러 김매기소리 가운데 가장 이색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서도(西道)소리 ‘난봉가’나 경기민요(京畿民謠) ‘경복궁타령(景福宮打令)’과 같은 민요들과 구조적으로 연맥이 있다고 본다. 매우 기세등등한 느낌을 준다.〈악보1-9〉

(아) 널널널 상사도야

백석리 노인들은 방아타령 다음에 이 소리를 불렀고 대화리 김현규는 자진놀놀이 다음에 불렀다. 이 소리는 3분박 느린 4박자(8분이 12박자)로 굿거리나 늦타령장단에 맞는다. 모갑이가 한 장단의 선소리를 메기면 농군들이 한 장단의 뒷소리를 “널널널 상사뒤야”하고 받는다. 백석리 소리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모갑이〉 널널널 상사뒤야
 〈농군들〉 널널널 상사뒤야
 〈모갑이〉 상사로구나 상사났네
 〈농군들〉 널널널 상사뒤야
 〈모갑이〉 무엇이 그리워 상사가 났소
 〈농군들〉 널널널 상사뒤야
 〈모갑이〉 국태민안은 각인이고
 〈농군들〉 널널널 상사뒤야
 〈모갑이〉 시화연풍은 연연이 들고
 〈농군들〉 널널널 상사뒤야 (뒷소리 하략)
 〈모갑이〉 이씨한양 등극시에
 삼각산이 기봉하야
 송학을 불러 대궐을 짓고
 대궐 밖에는 옥조가 낳소
 오영문 하각사에
 여기저기다 심어를 놓고
 (중 략)
 상사소리도 또 그만 두소
 몸돌 한번 들어 보세

대화리 김현규가 부른 이 소리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모갑이〉 널널널 상사도야
 〈농군들〉 널널널 상사두야
 〈모갑이〉 상사소리가 어찌나 좋은지
 〈농군들〉 널널널 상사도야
 〈모갑이〉 어깨춤이 절로 나네
 〈농군들〉 널널널 상사도야
 〈모갑이〉 한 소리는 질러 받고
 〈농군들〉 널널널 상사도야
 〈모갑이〉 또 한 소리는 낮춰 받소

〈농군들〉 날닐닐 상사도야

이 소리 사설은 지경다지는 소리와 비슷하여 명당풀이가 끼이기도 한다.

곡조는 긴소리 방아타령의 경우와 같이 전형적인 경토리로 되어 있다. 흥겨운 느낌을 준다.〈악보1-10〉

(자) 월월이

백석리(白石里) 노인들은 ‘상사뒤야’ 다음에 ‘몸돌여’를 부르고 나서 ‘월월이’로 넘어 갔으나 대화리 김현규는 ‘상사뒤야’ 다음에 ‘월월이’를 붙렸고 맨 나중에 ‘몸돌여’를 붙였다. 양주지역 김매기소리에도 ‘몸돌여’로 끝내는 예가 있어서 ‘월월이’를 먼저 다룬다. 월월이는 새 쫓는 소리라 한다. 몸돌소리가 끝날 무렵에 모갑이는 “새나 한번 날려 보세” 하고 메기고 이 소리로 넘어 온다. 그러나 벼 이삭이 낫을 때에는 실제 새보기에 이 소리가 불려지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소리는 김매고 나서 조해(鳥害)를 막고자 하는 주술적인 노래로 보인다. 그렇다면 몸돌소리 다음에 부르는 것도 맞다고 하겠다. 장단은 3분박 4박자(8분의 12박자)로 되어 있는데 백석리 것은 맨끝 마무리로 부르기 때문에 그런지 좀 빠른 장단으로 되었으나 대화리 것은 좀 느리게 되어 있다. 모갑이가 한장단을 메기면 농군들이 한장단을 “우후야 월월”하고 받는다. 백석리 노인들이 부른 이 소리 사설은 다음과 같다.〈1〉×3×4

〈모갑이〉 우후야 월월

〈농군들〉 우후야 월월

〈모갑이〉 우후야 소리 내도 말게

〈농군들〉 우후야 월월

〈모갑이〉 수원이 따오기 청성리 기러기

〈농군들〉 우후야 월월

〈모갑이〉 우후야 소리 재쳐 반우

〈농군들〉 우후야 월월

〈모갑이〉 아랫녔 새 웃녔 새야

〈농군들〉 우후야 월월

〈모갑이〉 녹두 밭에 앉지 말아

〈농군들〉 우후야 월월

〈모갑이〉 청포장사 울고 간다

〈농군들〉 우후야 월월

〈모갑이-농군들〉 우후야아아아아 휘어얼 휘어영얼

어허우

월후러이를 부르다가 끝날 무렵이 되면 모갑이는 ‘우후야 소리 재쳐 반우’ 하고 메기면서 빨리 몰아 간다. 맨 끝에는 다 같이 ‘우후야아아아아……’ 하고 새 쫓는 소리를 트게 지르고 마친다. 따라서 이 사설에는 새에 대한 말이 나온다.

김현규가 부른 대화리 ‘월월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새에 관한 것은 적고 벼에 관한 말이 많이 나온다.〈2〉

〈모갑이〉 우후야 월월

〈농군들〉 우후야 월월

〈모갑이〉 우후야 소리는 새 쫓는 소리

〈농군들〉 우후야 월월

〈모갑이〉 웃논에다간 찰벼를 심고

〈농군들〉 우후야 월월

〈모갑이〉 아랫논에는 메벼를 심어

〈농군들〉 우후야 월월

〈모갑이〉 수염이 빨개서 돼지찰이나

〈농군들〉 우후야 월월

자진놀놀이의 경우와 같이 이 소리의 구성음도 가(la), 다(do), 라(re), 마(mi)로 되어 있으나 종지음은 달리 라(re)로 마치게 되어 있어 이색적이다. 씩씩한 느낌을 준다.〈악보1-11〉

(차) 몸돌여

‘몸돌여’ 소리는 그 논에서 논매기가 끝나갈 때 농군들이 둥글게 싸면서 부르는 소리라 한다.〈1〉×3 백석리에서는 상사소리 다음에 붙였고 대화리에서는 ‘월월이’ 다음에 붙였다. 백석리 노인들은 상사소리 끝에 모갑이가 “몸돌 한번 들어 보세” 하고 메기면 몸돌로 들어 갔다. 이 소리 장단은 3분박 여덟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로 되어 굵거리 장단에 맞는다. 모갑이가 한장단을 메기면 농군들이 한장단을 ‘에이어라 모돌여’ 하고 뒷소리를 받는다.

백석리 몸돌여 사설은 다음과 같다.

〈모갓이〉 에이어라 몸돌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
 〈모갓이〉 팽팽 돌아라 자리 몸돌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
 〈모갓이〉 그녀가 발근 추천 몸돌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
 〈모갓이〉 몸돌소리에 이러를 나면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
 〈모갓이〉 모심은 논에가 된다라한다네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
 〈모갓이〉 몸돌소리도 또 그만두고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
 〈모갓이〉 별판에 떼새가 낳다고 허니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
 〈모갓이〉 새나 한 번 날여 보세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

대화리 몸돌소리 사설은 다음과 같다.

〈모갓이〉 에이어라 몸돌여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갓이〉 일낙석양네 해 떨어지네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갓이〉 석양세우 녹수풍에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갓이〉 물소리는 가까워 오고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갓이〉 뽕뽕 돌아라 따리 몸돌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갓이〉 몸돌소리가 뽕뽕 돌면
 〈농군들〉 에이어라 몸돌여
 〈모갓이〉 에이어라 빙빙
 〈농군들〉 에이어라 빙빙

이 소리 곡조의 구성음은 사(sol), 가(la), 다(do), 라(re), 마(mi)로 되어 경토리의 특성을 보이거나 종지음은 라(re)로 되어 있어 서도소리의 특성이 있다. 활달한 느낌을 준다.〈악보1-12〉

나. 장례치르기소리(晚歌)

일산 지역에서는 장례(葬禮)를 치르며 상여소리도 부르지만 한국의 중부지역이 흔히 그렇듯이 달구소리를 많이 불렀다 한다.

(1) 상여소리

일산지역에서는 초상(初喪) 나면 보통 5일장을 치루었고 가난한 이는 3일장을, 부자는 7일, 9일장을 치루었다 한다. 이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출상 전날 대들이는 없었다 한다. 대화리에는 상주도가(都家)가 있어 상여(喪輿) 등 장례에 필요한 기물(器物)들을 보관하는데 ‘동소임’이 이를 관리했다고 한다. 상여 메는이를 흔히 ‘상여꾼’이라 하였고 드물게 ‘상두꾼’이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자진해서 상여를 맨다고 한다. 상여의 양 옆에 각각 굵은 줄을 매는데 각각 한 줄씩 매면 ‘외박다위’라 하고 두 줄은 ‘쌍박다위’, 세 줄씩 매면 ‘삼박다위’라 이른다 한다. 흔히 외박이었고 덕(德)이 많은 이라야 삼박을 쓴다고 한다. 한 줄에 메는 상여꾼 수에 따라 6명이면 6장, 7명이면 7장, 8명이면 8장이라 이르는데 8장 이상은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8장에 ‘외박다위’면 16명, 6장에 ‘삼박다위’면 36명이 되는 셈이다. ‘외박다위’에는 8장을 쓰고 ‘쌍박’이나 ‘삼박’에는 6~7장을 쓴다고 한다. 상여의 앞에 드는 2장을 ‘애병구’라 하며 뒤에 드는 2장을 ‘뒷구쟁이’라 이르고 가운데 드는 상두꾼들을 연방꾼이라 이른다 한다. 앞에서 선소리를 메기는 이를 선소리꾼이라 이르는데 흔히 ‘목애비’라 이르며 이것을 통칭 ‘모갓이’라 이르는 것이다. 앞에서 줄을 잡는 이를 ‘집불리꾼’이라 이른다 한다. 상여소리에는 ‘오해’ 소리, ‘어넘차’ 소리(춤 추는 소리), ‘염불’ 등이 있고 호상(好喪)에는 장구 제금도 치고 호적(胡笛)으로 굿거리를 치기도 한다.〈2〉

(가) 오해소리

상여가 집을 떠나기 전에 부르는 발인 소리는 없었고 고 하며 집을 떠날 때에는 ‘오해’ 소리를 불렀다고 한다. 이 소리 장단은 3분박 좀 느린 4박자(8분의 12박자)로

굿거리 장단에 맞는다. 대화리에서는 선소리꾼(모갓이)이 북을 ‘둥-둥, 둥-둥, 둥-둥, 둥-둥’ 치며(요령은 쓰지 않는다고 함) 한 장단을 메기면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가며 한 장단에 “오호 오해”하고 뒷소리를 받는다 고 한다.

〈모갓이〉 오호 오해
 〈상여꾼들〉 오호 오해
 〈모갓이〉 이제 가면 언제 오리
 〈상여꾼들〉 오호 오해
 〈모갓이〉 오만 한을 일러 주오
 〈상여꾼들〉 오호 오해
 〈모갓이〉 명사십리 해당화야
 〈상여꾼들〉 오호 오해
 〈모갓이〉 꽃진다고 설어 말아
 〈상여꾼들〉 오호 오해
 〈모갓이〉 너는 명년 봄이 되면
 〈상여꾼들〉 오호 오해

이 소리 곡조의 구성음은 마(mi), 사(sol), 가(la), 다(do), 라(re)로 되어 있고 마(mi)로 종지하고 마(mi), 가(la), 다(do)가 주요음(主要音)으로 4도+단3도 구조로 된 이른바 메나리토리(東部民謠調)에 가깝게 되어 있다. 슬픈 느낌이 든다.〈악보1-13〉

(나) 어넘차소리

백석리 노인들은 상여소리를 ‘어넘차’ 소리만 불렀다. 이 소리 장단은 3분박*여늬 빠른 4박자로 굿거리장단에 맞는다. 모갓이가 두 장단의 선소리를 메기면 상여꾼들이 두 장단에 “오호 오호야 어리어넘차 오호야”하고 뒷소리를 받는다.〈1〉〈3〉〈4〉

〈모갓이〉 오호 오호야 어리넘차 오호야
 〈상여꾼〉 오호 오호야 어리넘차 오호야
 〈모갓이〉 허어허어 어허야 너거리 넘차 오호야
 〈상여꾼〉 오호 오호야 어리넘차 오호야
 〈모갓이〉 오지 마라 가지 마라 도라 올길이 망연하다
 〈상여꾼〉 오호 오호야 어리넘차 오호야
 〈모갓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오마는 날이나 일러

주오

〈상여꾼〉 오호 오호야 어리넘차 오호야
 〈모갓이〉 천지루다가 집을 삼고 황토루다 토담 삼아
 〈상여꾼〉 오호 오호야 어리넘차 오하야
 〈모갓이〉 토침 비고서 누웠으니 임이 오나 잠이 오나
 〈상여꾼〉 오호 오호야 어리넘차 오호야
 〈모갓이〉 송죽으로 울을 삼고 두견 잡견이 벗이 되어
 〈상여꾼〉 오호 오호야 어리넘차 오호야
 〈모갓이〉 이승 천지 몰라 보니 이승 바깥이 또 있겠소
 〈상여꾼〉 어호 어호야 어리넘차 오호야

이 소리는 곡조의 구성음은 라(re), 마(mi), 사(sol), 가(la) 다(do)로 되고 라(re)나 가(la)로 마치는 추심가(愁心歌)토리(西道民謠調)로 되어 있다. 슬픈 느낌이 든다.

대화리 김현규는 노제 지낼 때, 또는 절반을 때 상여꾼들이 미리 이른바 ‘상여 춤춘다’고 하여 상여를 갈지자로 움직이며 놀리는데 이 때 ‘어넘차’ 소리를 부른다고 한다. 김현규가 부른 ‘어넘차’ 소리는 백석리의 것과 같다.

(다) 염불소리

김현규는 장지에 가까워 오면 상두꾼들은 염불소리를 부른다고 한다. 이 소리는 자유리듬으로 모갓이와 상여꾼이 다같이 ‘나무아미타불’하고 여러 차례 부른다고 한다. 이 소리는 메나리토리로 되어 있다.

(2) 회대소리(달구질소리)

대화리 김현규에 의하면 상여가 장지에 당도하여 하관하고 회를 넣고 흙을 다지는 것을 ‘회대한다’고 이른다 한다. 회대하는 이를 회대꾼 또는 연추꾼이라 한다. 회대꾼은 ‘연추대’라 하여 길이 7~8자 되는 소나무 막대기를 들고 춤추듯 방아질하며 흙을 다지며 소리한다. 회와 흙을 한 번 넣고 다지는 것을 ‘한 캐(켜)’라 하는데 최소 3캐를 다진다고 한다. ‘한 캐’ 다지는데 빨라야 40분 걸린다고 한다. 3일장에는 3캐, 5일장에는 5캐, 7일장에는 7캐, 9일장에는 9캐를 다지는데 지금은 흔히 3캐라 한다. 회대꾼이 회대질하며 부르는 소리를 회대소

리라 한다. 모갓이가 북을 둥둥 치며 선소리를 메기고 회대꾼이 뒷소리를 받으며 회대질을 한다. '한 캐'에 부르는 소리 한 바탕이 있는데 '긴소리', '달고소리', '양산도',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놀놀이', '상사소리', '월월이'를 부른다고 한다. 여기서 '긴소리'와 '달고소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리는 김매기소리(두레소리)와 같다고 한다.

(가) 긴소리

백석리 노인들은 '긴소리' 없이 바로 '달고소리'로 넘어 갔으나 대화리 김현규는 먼저 '긴소리'부터 냈다. '회대소리'에도 두레소리의 경우와 같이 "이편 저편 궁방넘네……"하고 군말이 있다. 모갓이가 군말을 하고 맨먼저 하는 회대소리가 '긴소리'이다. '긴소리'는 자유리듬으로 길고 유장하게 부른다. 모갓이가 선소리를 메기면 회대꾼들이 "에헤에이 도호오오 오오"하고 받는다.

〈모갓이〉 에헤에이 도호오오
 〈회대꾼〉 에헤에이 도호오오
 〈모갓이〉 울어 울어 울어 받아만 주오
 〈회대꾼〉 에헤에이 도호오오
 〈모갓이〉 가자며는 유자충신
 〈회대꾼〉 에헤에이 도호오오
 〈모갓이〉 이내 춘색은 다 지나 가고
 〈회대꾼〉 에헤에이 도호오오
 〈모갓이〉 황국단풍이 돌아왔네
 〈회대꾼〉 에헤에이 도호오오

이 소리 구성음은 마(mi), 사(sol), 가(la), 다(do), 라(re)로 되어 있고 종지음은 가(la)로 되었다. 메나리조에 가깝다. 슬픈 느낌을 준다.

(나) 달고소리

백석리 노인들은 '회대소리'를 긴소리 없이 바로 '달고소리'로 내었다. 이 소리 장단은 3분박 느린 4박자(8반의 12박자)로 중중모리장단에 맞는다. 모갓이가 한장단에 선소리를 메기면 회대꾼들이 한장단의 뒷소리를 "아히어라 달고" 하고 받는다.

〈모갓이〉 에히어라 달고
 〈회대꾼〉 에히어라 달고
 〈모갓이〉 달고 사십이 조군가니
 〈회대꾼〉 에히어라 달고
 〈모갓이〉 전신에 노력을 다 들여 가며
 〈회대꾼〉 에히어라 달고
 〈모갓이〉 적추 밭에 금붕어 놀고
 〈회대소리〉 에히어라 달고
 〈모갓이〉 굵실 굵실 잘도나 논다
 〈회대소리〉 에히어라 달고

이 소리 곡조는 경토리로 되어 있다. 씩씩하다.

다. 지경다지기소리

일산지역 일하기소리(노동요)에는 이미 살펴본 농사짓기소리와 장례치르기소리 이외에도 '지경다지기소리'와 말뚝 박을 때 부르는 '싱아대소리'가 있는데, '싱아대소리'는 '지경다지기소리'와 같다고 하므로, '지경다지기소리'만을 더 살펴 보고자 한다.

대화리 김현규에 의하면 일산지역에서는 새로 집을 지을 때 땅 다지는 것을 '지경다진다' 또는 '지경단는다'고 한다. 마을마다 100근이 훨씬 넘는 달걀 모양의 지경돌이 있다고 한다. 지경 다지는 날 굵은 동아줄을 꼬아서 찌리 모양으로 앓을방석을 만들고 여기에 지경돌을 얹고 굵은 줄을 여러 가닥 다는데, 앞에 두 가닥 양 옆에 각각 두 가닥씩 뒤에 두 가닥씩 단다. 앞 줄을 '목줄'이라 하여 힘이 들므로 젊은이들이 감당한다고 한다. 대화리 지경다지는소리에는 '어야차', '지경소리', '양산도', '자진방아타령', '놀놀이', '상사도야', '월월이' 등이 불리워진다고 한다. 회대소리의 경우와 같이 모갓이가 북을 치며 선소리를 메기고 지경꾼들이 뒷소리를 받으며 지경돌을 들었다 놓았다고 한다.

(1) 어야차소리

이 소리는 경상도 망개소리와 사설이 같다. 이 소리는

〈모갑이〉 어야라 차
 〈지경꾼〉 어야라 차
 〈모갑이〉 이집 진지
 〈지경꾼〉 어야라 차
 〈모갑이〉 삼년 안에
 〈지경꾼〉 어야라 차

이 소리 곡조의 구성음은 다(do), 라(re), 마(mi)로 되어 있고 다(do)로 되어 있다.

(2) 지경소리

이 소리는 본디 지경소리로 굿거리 장단에 맞는다. 한 장단 메기고 한 장단을 “에히여라 지경이요” 하고 받는다.

〈모갑이〉 에히여라 지경이요
 〈지경꾼〉 에히여라 지경이요
 〈모갑이〉 경기도 하고도 고양 땅에
 〈지경꾼〉 에히여라 지경이요

이 소리의 곡조는 두레소리의 몸돌소리와 같다.

3. 두레와 두레잡이

일산지역에서는 여름철에 농군들이 벼농사를 많이 짓는데 김매는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마을마다 두레를 조직하여 김매기를 하였고 이 김매기 두레에 농악이 딸리었다 한다. 또 김매기를 마치고 날을 받아서 호미걸이라는 축제를 벌이었다 한다. 일산지역에서 두레는 대화리 뱀개(蛇浦)마을의 것이 가장 먼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의 두레를 ‘구두레’라 하여 다른 마을 두레와 구별하여 불렀던 것과 호미걸이를 이 마을에서 했고 이웃 마을 두레패들이 이 호미걸이에 참가하였고, 뱀개 마을 농기를 ‘영좌기’라 하여 형 대접으로 다른 마을 농기들이 절을 하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뱀개마을 호미걸이에 참가하였던 두레가 성저, 장촌, 백암, 내촌, 덕이, 두신, 동촌, 이산포, 도촌, 할미두레(김서 양촌), 자방두레 등이었다는 것으로 봐서 일산지역에 여러 마을이 두레를 조직하여 농사를 지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참 두레가 성할 때에는 온 들녘이 각 마을 두레기로 가득하였다고 한다.〈2〉

가. 두레

일산지역에서는 두레를 조직하는 것을 ‘두레 일으킨다’고 하였다 한다. 김매기 두레는 모심고 나서 7주일~10일쯤에 날을 받아서 회의를 부쳐 조직한다고 한다. 이것을 ‘두레회한다’고 하였다. 마을 유지가 음식을 장만하고 저녁에 사람들을 소집시키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장의 사회로 먼저 좌상, 영좌, 부영좌, 유사, 조사를 선출하였다고 한다.

좌상은 두레의 가장 나이 많은 이로 삼으며, 영좌는 두레를 감독할 임무를 지며, 부영좌는 영좌의 소임을 보좌하는 임무를 지며, 유사는 두레에 딸린 사무를 관장하는데 요즘말로 총무를 가리킨다 한다. ‘조사’는 심부를 하는 아이역이라 한다. 날이 가물어 벼농사가 어렵게 되면 두레를 일으키지 않고 쉬다고 한다.

어린 사내아이가 커서 어른 몫을 할 때가 되면 팔씨름 또는 농깃대 들어 보기와 같은 힘겨루기를 시켜 어른들의 인정을 받으면 어른 몫을 감당한다고 한다. 삼남지역에서는 이때 진서(進鋤)술을 부모가 내는데 일산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다.

나. 농기와 기물

두레가 조직되면 먼저 농기 및 쟁과리, 징, 장고와 같은 두레에 필요한 기물을 장만한다고 한다. 기물은 작년에 쓰던 것을 다시 꾸며 쓰는 것이 상례이지만 기물이 없거나 망가졌을 때에는 새로 장만한다. 두레꾼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고 살 것은 사다 쓴다.

농기는 여러가지 부분을 사다 조립하는데 두레꾼들이 만들 부분은 손수 만든다. 7m쯤 되는 대나무를 사다가 다듬어 깃대를 만든다. 깃대의 꼭대기에는 쟁꼬리 깃털로 만든 깃봉을 다는데 ‘쟁장목’ 또는 ‘장목’이라 이른다.

이것은 사다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깃봉 밑에는 댕기를 다는데 조그만 삼각형으로 마치 영기(令旗)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 댕기 밑에는 굵은 당사실로 만든 줄을 둘 달아 그 줄 양 끝에 용두대를 매단다. 용두대는 한 발 남짓한 나무를 길게 깎아 만든 것으로 양끝에는 용두(龍頭)를 새기고 단청(丹青)한 것이라 한다. 양끝 용두에는 긴 유소(流蘇)를 느리는데 ‘주렴’이라 이른다 고 한다. 이 유소에는 가운데에 굵은 매듭을 세개 다는데 가운데 것은 더 굵어서 ‘왕매듭’이라 이르고 위 아래 것은 좀 작아서 ‘소매듭’이라 이룬다고 한다. 유소 끝에는 술을 단다. 용두에는 깃폭을 단다. 깃폭은 무명으로 만드는 것이나 일제 때 광목으로 만들었다 한다. 길이는 21척(尺)쯤 되며 너비는 광목 한폭에서 3촌(寸)쯤 적게 만든다. 깃폭은 세로 달며 위쪽에는 ‘3동달이’라 하여 3촌(寸)쯤 되는 너비로 삼색(三色) 색동을 달고 아래 끝에도 이와 같이 색동을 달며 좌우(左右) 양편에는 3촌쯤 너비로 가장자리를 달고 그 양편에 붉은 천을 갈지자로 오린 것을 여러 개 다는데 ‘지네발’이라 이른다. 깃폭의 맨 아래는 6촌(寸) 길이로 제비초리 모양의 천을 양편에 다는데 ‘꼬랑지’라 한다. 깃폭은 흰 색이며 먹으로 크게 「神農遺業」이라 쓰는 경우가 많고 일제 때에는 마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썼던 일이 있는데 양촌에서는 「農業合同之旗」라 하였고 뱀개(원 대화리)에서는 「第一興農之旗」라 하였고 강서에서는 「歲歲年年某某之旗」라 하였다 한다. 이 큰 글씨의 양편에는 작은 글씨를 써 넣는데 오른편에는 「某某里之旗」라 쓰고 왼편에는 마을 주소와 제작 연월일(年月日)을 써넣는다고 한다.

악기는 팽과리 2, 제금(바라) 1, 징 1, 장구 1, 북 1, 소고 8~15, 호적 1~2로 편성된다고 한다.<2>

다. 두레잡이

두레패들이 치는 농악을 일산지역에서는 ‘두레잡이’라 하며 두레굿 치는 것을 ‘두레잡이 친다’고 한다. 아무 동네 사람들이 두레 농악 치는 것을 ‘아무 두레 잡이 친다’고 하였다 한다.

두레 일으킨지 1주일 뒤부터 김매다. 김매는 날 새벽에 두레꾼들이 주인집에서 조반을 먹고 김매러 나가는 데 때로는 주인집 머슴이 새벽에 북을 쳐 일꾼들을 깨우

기도 하였다 한다. 옛날에는 새벽 2시에 북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뒤에는 시대가 변하여 3시 반에 깨었고 나중에는 5시까지 늦어졌다 한다. 옛날에는 4시 반 쯤에 두레꾼들이 주인집에서 새벽밥을 먹고 들로 나갔다 한다.

두레꾼들이 들에 나가는 순서는 주인, 농기, 팽과리, 제금, 징, 장구, 북, 호적, 일꾼 순으로 된다. 주인은 지계를 지고 앞서 가는데 지계에는 8~15개 가량 소고를 얹고 우장을 얹고 낫을 얹고 그 밖에 두레꾼들이 오가며 노는데 쓰는 기물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

두레꾼들은 ‘길군악 7채’라는 가락을 치고 들로 나가 주인집 논에 당도 하면 기잡이는 농기를 논두렁 한 편에 세우고 잡이들은 모여 서서 ‘녕길채’ 가락을 치고 ‘자진 4채’ 가락으로 넘기고 ‘원4채’ 가락으로 물고 간 다음, ‘3채’ 가락으로 돌리고 ‘자진3채’ 가락으로 물고 ‘2채’ ‘자진2채’ ‘1채’ ‘자진1채’로 몰아 간 다음, ‘길군악 7채’ 한 마루 치고 나서 ‘5채’ 가락 한 마루 치고 마친다고 한다. 이 길군악에는 소고를 쓰지 않았다 한다.

그 동안 기잡이는 논두렁에 기를 쫓고 무명으로 만든 ‘기줄’을 기목에 매달고 사방에 벌려 말뚝을 박아 ‘기줄’을 매달아 기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고정시킨다.

두레패들은 ‘잡이’ (두레 농악)를 마치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나서 김을 매는데, 타지역에서는 김매 때에도 두레풍장을 치는 곳도 있지만 일산지역에서는 김매 때에는 악기들을 모두 논두렁에 두고 치지 않는다고 한다. 악기는 모두 깃대 밑에 두는데 땅에 우장을 펴고 제금 놓고 그 위에 징을 얹어 놓고 그 위에 장구를 얹어 놓는다고 한다. 팽과리와 북은 깃대에 매달아 놓는다고 한다. 소고는 길군악에 치지 않고 잡이 치고 놀 때에 친다. 잡이를 마치면 소고는 지계에 얹어 놓는다. 10시쯤 되어 참이 나오면 참을 먹고 약 20분쯤 잡이(농악)를 치고 노는데 ‘자진1채’ ‘1채’ ‘자진2채’ ‘1채’ ‘자진1채’ ‘7채’로 돌리는데, ‘3채’로 바로 치거나 때로는 ‘5채’ 치고 ‘길놀이 4채’를 치는 수도 있다. 끝에는 ‘길군악’ 첫머리 치고 농악을 마친다. 담배 한 대 피고 다시 김을 맨다고 한다.

이 아침참에 김매는 소리를 한다. 그날 일이 한 나절 품일 때에는 소리를 하지 않고 김을 매며 하루 품일 때에는 아침 참과 저녁 참에 소리를 하면서 김을 맨다고 한다. ‘모감이’라 이르는 선소리꾼이 어깨에 북을 매고

치면서 소리를 메기면 농군들이 뒷소리를 받으면서 김을 맨다. 소리는 '긴소리'를 먼저 내고 '사두여' '양산도'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놀놀이' '자진놀놀이' '상사뒤야' '훽훽이'를 부르고 나서 맨 나중에 쌈싸면서 '몸돌이'를 부른다고 한다. 이 소리 한바탕을 '소리 한 참'이라 이른다. 소리는 그 논배미가 끝나도록 한다. 점심 때는 농군들이 길군악(행진 농악가락)을 치면서 주인집으로 가서 점심을 먹는다. 1시간쯤 쉬고 나서 길군악을 치고 들에 나가 김을 맨다. 새참을 먹고 잼이(농악)를 치며 잠깐 놀고 나서 소리하며 김을 맨다. 참참이 참을 들며 김을 매고 그 날 김매기를 마치고 길군악을 치며 들어 온다.

두레패의 김매기 작업구성을 간추려 보면, 「들에 나가기(길군악)-잼이 치기-김매기-술 참-김매기-아침 참-잼이 치기-김매기(소리)-술 참-김매기-마일에 들기(길군악)-점심-쉬기-들에 나가기(길군악)-잼이 치기-매기-쉬는 참-김매기-새참-잼이 치기-김매기(소리)-술참-김매기-마일에 들기(길군악)」로 되어 있다.

두레패들이 김매기를 마치고 길군악을 치며 마을에 들어 동네 입구에 당도하면 주인이 미리 동구 밖에 술상을 내다 놓는다. 그 날 일이 하루 참일 때에는 이 때에 술을 내오지만 한나절 참일 때에는 술을 내오지 않는다고 한다. 술 먹고 나서 농군들은 4채 가락으로 잼이 치고 주인 집에 들어 간다. 이 때에는 소고도 친다. 주인집 마당까지 들어 가서 잠깐 잼이를 치고 놀다 저녁 먹고 '마당거리'라는 잼이(농악)를 친다.

마당거리는 이를테면 판굿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대개 한시간 가량 노는 것이지만 대가덕 큰 집 판이 어우러져 길어지면 12시까지 노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마당거리는 잼이를 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갖가지 가락을 치는데, 소고잼이들은 동그라미 안에서 소고춤을 추며 논다고 한다. 한 시간 가량 잼이(농악)를 치고 나면 잼이를 끝내고 헤어지기도 하는데 흥이 갈아앉지 않은 두레꾼들은 남아서 소리판을 벌인다고 한다. 마당 한 가운데에 명석을 펴놓고 둘러 앉아 목청 좋은 소리꾼들이 호적잼이와 대피리잼이의 반주로 갖가지 소리를 하는데 흔히 민요들을 부른다. 이때 부르는 민요는 짝이 있고 또 그 짝끼리 순서가 있다고 하다. '양산도',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이 한 짝이고 '개성난봉가',

'한강수타령'이 한 짝이며 '노래가락', '청춘가', '창부타령'이 또 한 짝이 되고 '긴난봉가', '자진난봉가', '병신난봉가', '사설난봉가'가 한 짝이 된다고 한다. 그 부르는 순서는 대개 '긴난봉가' 짝에서 시작하여 '양산도' 짝으로 마치거나 '노래가락' 짝에서 시작하여 '개성난봉가' 짝으로 넘어가고 '양산도' 짝에서 마친다고 한다. 어느 경우나 맨끝에는 '파연곡'으로 마무리 짓는다. '파연곡'이란 '파연곡 하사이다'하는 노래말을 노래가락으로 부르는 것이다. 파연곡을 제창(齊唱)하고 각자 집으로 가서 잔다고 한다.

두벌 김매 때에도 초벌 맬 때와 행위가 같다고 한다. 그러나 세벌 맬 때는 다르다고 한다. 세벌은 '삼동'이라 이르는데, 삼동은 눈에 김 있는 이만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레는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 또 일산지역에서는 장원질 같은 것이 없었다고 한다.

두레는 27일에서 한 달 사이에 마친다고 한다. 김매기가 끝나고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두레 심 본다'고 하여 결산을 본다고 한다. 이 때 일한 량과 논 소유량에 따라 돈을 내 놓기도 하고 타가기도 한다.

심보는 날 아침 8시 반쯤에 유지 집에 농군들이 모여 심보고 10시쯤 끝나면 유지 집 마당에서 술 먹고 농악치고 놀다가 점심을 먹고 바로 집돌이란 굿패들이 농악을 치며 집집마다 들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집돌이는 정초 마당뺨이와 달라서 고사반이 없고 일종의 술추념이라 하다. 유지 집에서 가까운 집부터 차례대로 도는데, 집돌이가 끝나면 밤 10시쯤 되는데 밤 늦게 다시 유지 집에 돌아와 농악을 그치고 마당에 명석을 깔고 소리판을 벌인다고 한다.〈2〉 구두레가 있던 뱀개 마을에서는 이와 같이 두레를 크게 벌였으나 다른 마을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았던 것 같다. 뱀개 마을과 같이 들이 넓고 부농이 많은 곳에서는 두레를 크게 벌일 수 있었으나 백석리와 같이 주변에 바다 물이 드는 곳이 많은 곳에서는 농토가 좁아 두레를 일으키되 그렇게 두레꾼들이 갖가지로 갖추어 놀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라. 호미걸이

김매기가 끝나고 칠월 칠석 전후 해서 호미걸이를 한다. 호미걸이란 농군들이 김매기를 마치고 벌이는 축제

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 호미씻이, 풋굿, 두레먹기 등으로 부르는 것이다. 일산지역에서는 구두레가 있는 뱀개마을에서만 호미걸이를 하였고 다른 마을에서는 '구두레'가 있는 뱀개마을 호미걸이에 참가하여 같이 축제를 벌였다 한다. 호미걸이는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시절이 좋을 때에만 했다고 한다. 두벌김멜 때 그해 호미걸이를 할 것인가 여부를 정한다고 한다. 두벌김멜 때 쫓 되면 그해 농사가 판가름이 난다고 한다. 그해 농사 된 것과 마을 사정을 참작하여 그해 호미걸이를 할 것으로 정해지면 즉시 호미걸이 할 날자를 정하고 마을 안과 '구두레' 호미걸이에 참가하는 이웃 마을에 알린다고 한다.

뱀개마을에서는 호미걸이에 쓸 음식을 정하고 이것을 각 유지들에게 배정한다. 밥쌀, 술, 고기 등을 배정하는데 밥쌀은 4섬이나 되고 술도 많이 담근다. 송아지도 한 마리, 돼지는 여러 마리 잡아 고기도 많이 장만한다고 한다.

일산지역의 호미걸이는 뱀개도당재에서 했다고 한다. 뱀개도당재는 이 마을 뒷산에 있었는데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했다고 한다.

호미걸이 전날이 되면 마을사람들이 당 마당을 청소하고 용가술(큰술)을 여러 개 걸고 채일도 치고 하여 만반 준비를 한다고 한다. 당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남자들이 모여 기(旗)를 앞세우고 길군악(행진농악)을 치고 당 앞에 가서 기잡이가 기(旗)를 붙잡고 서 있는 가운데 건어물(乾魚物) 등으로 제물을 진설하고 상산제(山神祭?)를 지냈다고 한다. 일자로 늘어서서 잽이(농악)를 울리고 나서 그치고 축문(祝文)을 읽고 잽이를 '쟁쟁쟁쟁쟁.....' 하고 치며 사방(四方)에 절하고 기를 쫓고 내려 온 다음에 여자들이 올라 가서 대동고사(大同告祀)를 지냈다고 한다. 당 마당에 시루상을 채리고 비선한다고 한다. 상산제는 농사 시절 잘 되라는 것이며 대동제는 질병 없고 사람 다치지 말라는 것이라 한다.

대동제가 끝나면 잽이가 시작된다. 남정네들이 잽이를 치고 있으면 이웃 마을 두레들이 차례로 기(旗)를 앞세우고 잽이를 치며 호미걸이에 참례하러 온다. 참례하는 두레가 많을 때에는 20개가 넘었다고 한다. 이웃 두레패가 동네 어구까지 오면 뱀개두레패가 잽이를 치며 마중나간다. 동네 어구에서 만난 두 두레패는 두 줄로

늘어서서 잽이를 치며 들어 온다고 한다. 찾아 오는 두레패는 수레에 술을 싣고 온다. 이렇게 오는 대로 계속 마중을 나간다. 호미걸이에 참례하는 두레패가 당마당에 오게 되면 각각 따로 농악을 치며 놀다가 모두 오게 되면 점심을 먹고 나서 '기 절 받기'를 한다고 한다.

당마당에 '구두레' (뱀개 마을 두레)는 당 앞에 일렬 횡대로 밖을 향하여 늘어 서고 '신두레' (초청 받은 두레)들은 일렬 종대로 당을 향하여 방사선으로 늘어선다. 기잡이가 영좌기(구두레기)를 중앙에 들고 서면 신두레 기들이 세 바퀴 쏘고 영좌기가 한 바퀴 쓴다. 신두레기들이 세 번 절하면 영좌기는 반절로 받는다. '기 절 받기'를 마치면 '기썰기'를 한다. 각 마을 기잡이들이 기를 수평에 가깝게 비스듬히 들고 돌리는 것을 기 쓴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이를 장원으로 뽑는다. 역대 기 썰기로 장원한 이들의 이름이 전해지는데 영좌기잡이 강여관이 강덕필이 김영만이 김은권이 김천규라 한다. 이 가운데 김영만은 힘이 장사라 기를 열세 번이나 썰었다고 한다. 장원으로 뽑힌 이는 배 한 필, 정목 한 필을 상으로 받았다고 한다.

기썰기가 끝나면 한 두레씩 나와서 논다고 한다. 해질 녘이 되면 각 두레들은 돌아가고 본두레(구두레)는 뱀개마을을 돌며 집돌이를 하였다 한다.

일산지역에서 이와 같은 호미걸이는 신묘년(辛卯年: 1951)을 마지막으로 단절되었고 다만 김현규(金鉉圭)에 의하여 호미걸이가 민속놀이로 복원 되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 여러 민속공연에 참가한 적이 있다.<2>

4. 잽이 [農樂]

일산지역에서 농악(農樂)을 '잽이'라 한다. 농악을 연주 하는 것을 두고 '잽이 친다'고 한다. 농악기 또한 '잽이'라 한다. 풍물(농악기)을 사오는 것을 '잽이 사온다'고 하였다 한다. 일산지역에서 농악이 연주되는 계기는 정초의 마당밧이와 여름철 김매기 때 두레농악, 타 지역에서 오는 걸립패의 농악, 새 집 짓고 집들 때 치는 성주굿, 그 밖에 파일 놀음 등에 농악을 쳤다 한다.

가. 마당놀이(마당밧이)

일산지역에서는 정초에 벌이는 마당밧이 농악을 '마당놀이'라 하였다 한다. 마당놀이는 정월 2일~3일부터 선보름까지 놀았다. 마당놀이패는 마을사람들이 꾸미는데 그 편성은 농기(農旗), 상쇠, 부쇠, 제금(바라) 1, 징 1, 장구 1, 북 1, 소고 7~10, 호적 1, 양반 1, 꼭두각씨로 되었다. 농기는 두레패의 것과 같은 것이다. 짚이들의 복색은 바지 저고리 차림에 고깔을 쓰고 색띠를 띠는 것이다. 오른쪽 어깨에 누른 것, 왼쪽 어깨에 푸른 것, 허리에 누른 것을 매었다. 양반은 두루마기 차림에 갓을 쓰고 긴 수염을 달고 지팡이 짚고 장죽을 물었다. 꼭두각씨는 양반 작은 마누라인데 노란 저고리 붉은 치마를 입었다 한다.

날마다 놀이패들이 집집마다 차례로 도는데 놀이패들이 들르면 집주인은 고사상을 마루에 차려 놓는다. 소반 위에 쌀을 가득 채운 말을 올려 놓고 그 위에다 또 쌀을 가득 채운 대주 밥그릇을 올려 놓고 그 위에 촛불 켜놓고 숫가락 꽂아 놓고 실타래를 걸쳐 놓고 상 한켠에 정화수를 놓고 나면 놀이패들이 고사(告祀)소리를 하는데 만일 고사소리 하는 이가 없으면 절하고 나온다고 한다. 고사를 마치고 놀이패는 쌀을 걷어 가지고 나가는데 부자들은 술상도 내놓고 쌀을 더 내놓기도 하지만 가난한 이는 쌀 한 보시기만 내기도 한다. 걷은 쌀은 모아서 일부는 '도당비'라 하여 당제 지내는데 쓰고 일부는 기타 경비로 쓴다고 한다.<1>

뽕개에서는 정초 지신밧기를 유가(遊家) 또는 집들이라 하였다 한다. 정월 초나흘부터 16일 까지 노는데 날마다 이 집 저 집에서 부르는 대로 마을사람들이 농악을 치며 집돌이를 한다. 주인은 술내고 음식을 내놓을 뿐, 돈이나 쌀을 내놓는 일은 없다고 한다.<2>

나. 두레짚이와 호미걸이

일산지역의 두레짚이(두레농악)에 대한 것은 앞 장 두레와 두레짚이에서 다루었다.

다. 짚이가락 (농악가락)

일산지역에서는 농악장단을 '짚이가락'이라 한다. 일산지역 농악에 흔히 쓰이는 짚이가락에는 '7채', '넙길채', '마당놀이 5채', '길놀이 5채', '무동 5채(긱거리)', '자진4채', '원4채', '3채', '자진3채', '2채', '자진2채', '1채', '자진1채' 등이 있다 한다. 이 밖에 특별히 두레패끼리 짚이가락을 겨룰 때 쓰이는 '12채'라 하여 12가지 짚이가락이 있다 한다. '12채가락'은 전문적인 상쇠나 치는 가락으로서, 아는 이가 드물었다 한다.

'7채'는 흔히 길군악이라 하는 것으로 주로 행진에 쓰이며 3분박과 2분박이 3+2+3+2+3+3+3+2+3+2+2+3+3+2로 짜여진 혼성박자이다. 징이 1,3,5,6,7,9,11박에 각각 1점씩 쳐 모두 7점을 치는데 이와 같이 징이 7점 들어 간다 하여 이 가락을 '7채'라 하는 것이다. 쇠가락은 "꺅지갱, 꺅-, 꺅지갱, 꺅-, 꺅지갱, 꺅지갱, 꺅지갱, 꺅-, 꺅지갱, 꺅-, 지갱, 꺅지갱, 꺅-꺅-, —"하고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다음 가락과 비교하여 '끊어 치는 것'이라 이르며 "꺅지갱, 꺅-, 꺅지갱, 꺅-, 꺅지갱, 꺅지갱, 꺅지갱, 꺅-, 꺅지갱, 꺅-, 지갱, 꺅지갱, 꺅지갱, 꺅-"하고 맨 끝을 달리 치는 것은 '붙여치는 것'이라 한다. <악보2-1>

'넙길채'는 '7채'가락에서 다음 놀이 가락으로 넘어갈 때 치는 가락으로 3분박과 2분박이 2+3+3+2로 짜여진 혼성박 4박자이다. 징은 첫 박에 1점 친다. 쇠가락은 "꺅-, 꺅지갱, 꺅지갱, 꺅-"하고 친다. <악보2-2>

'5채'에는 길놀이 때 치는 '5채'가 있고, 마당놀이때 치는 '5채'가 있고, '무동5채'가 있다 한다. 마당놀이때 치는 '5채'는 3분박 여덟 빠른 4박자 둘로, 다시 말해서 3채 두 장단으로 되어 있다. 서양음악 용어로 말하면 8분의 12박자 둘로 되어 있다. 쇠가락은 "꺅지갱, 꺅갱-, 꺅지갱, 꺅갱-, 꺅지갱, 꺅지갱, 꺅지갱, 꺅갱-"하고 치며 징은 1,3,5,6,7째 박에 1점씩 들어 가 모두 5점을 친다. 이 장단을 '5채'라 하는 것은 징이 5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길놀이 5채'는 3분박 좀 느린 4박자로 되어 있는데 쇠가락은 "꺅갱-, 꺅-꺅, 꺅지갱, 꺅꺅꺅"하고 치며 징가락은 "꺅--, 꺅--, 꺅-꺅, —"

하고 쳐 1,2째 박에 각각 1점 씩, 3째 박에 2점, 모두 4점을 친다. 이 가락을 '5채'라 하는 것은 징을 5점 치는 때문이겠는데 '마당놀이 5채'와 달리 '길놀이 5채'는 징이 4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과는 다르게 되어 있다. '무동5채'는 '길놀이 5채'와 같다.〈악보2-3〉

'4채'에는 '원4채'와 '길놀이4채'가 있다. '원4채'는 마당놀이 할때 치는 것이며 3분박 여덟 빠른 4박자인데 서양음악 용어로 8분의 12박자이다. 팽과리는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하고 치며, 징은 본디 "팽--, 팽--, 팽-팽,—" 하고 4점을 치는 것이나 이렇게 징을 자주 박아 치면 징이 깨진다고 "팽--, 팽--, 팽--,—" 하고 3점만 친다고 하다. '길놀이4채'는 행진 가락인데 박자와 징 치는 법은 '원4채'와 같으며, 팽가리 가락이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하고 쳐 '원4채'와 구별될 뿐이다. 이 가락은 춤추며 행진하는 때 흔히 친다. 4채는 굿거리라 부르기도 한다.〈악보2-4〉

'자진4채'는 녕김채에 이어서 치는 경우가 많다. 3분박 좀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이며 팽과리는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하고 치며 징은 1,3째 박에 각각 1점씩 쳐 모두 2점을 친다. 이 가락을 왜 '4채'라 하는지 알 수 없다.〈악보2-5〉

'3채'는 '4채'나 '5채'에 이어 치는 경우가 많다. 3분박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이며 팽과리는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하고 치며 징은 1,2,3째 박의 각 주박에 1점씩 모두 3점을 친다. 이 가락을 '3채'라 하는 것은 징을 3점 치는 때문으로 볼 수 있다.〈악보2-6〉

'자진3채'는 '3채'나 '5채'에 이어 치는 경우가 많다. 팽과리는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하고 치며 징은 1,3째 박에 1점씩 쳐 모두 2점을 친다. 이 가락을 왜 '3채'라 하는지 알 수 없다.〈악보2-7〉

'2채'는 흔히 '3채'에 이어 친다. 3분박 매우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이며 팽과리는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하고 치며 징은 매 박에 1점씩 친다. 이 가락을 왜 '2채'라 하는지 알 수 없다.〈악보2-8〉

'자진2채'는 흔히 '2채'에 이어 친다. 2분박 매우 빠른 4박자(4분의 4박자)이며 팽과리는 "갠-, 개개, 개개, 갠-" 하고 치며 징은 1,2째 박에 1점씩 모두 2점을 친다.〈악보2-9〉

'1채'는 흔히 '2채'에 이어 친다. 2분박 매우 빠른 4

박자(4분의 4박자)이며, 팽과리는 "개개, 갠-, 개개, 갠-"하고 치며 징은 1,3째 박에 1점씩 모두 4점을 친다. 이 가락을 왜 '1채'라 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악보2-10〉

'자진1채'는 2분박 매우 빠른 4박자(4분의 4박자)이며, 팽과리는 "갠지, 갠지, 갠지, 갠지" 하고 치며 징은 매 박마다 1점씩 친다. 그러나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요즘은 징을 첫 박에만 1점 친다.〈악보2-11〉

일산지역에서 잽이꾼들이 채가락을 넘기는 법은 길놀이, 마당거리, 당산굿, 기 절반기 등 그 쓰임새에 따라 여러 가지이다. 어느 경우에도 먼저 잽이를 일으키고 나서 그 쓰임새에 따라 다음 가락으로 달리 넘어 간다. 잽이들이 쇠가락을 일으키는 법은 '자진1채' - '1채' - '자진2채' - '1채' - '자진1채'를 친 다음 행진(行進)의 경우에는 '7채'로 넘어가고 노는 자리가 넓어 마당거리를 벌일 때에는 '5채'로 넘어가고 자리가 좁아 잠깐 잽이를 칠 경우에는 '3채'로 넘긴다. 두레패나 마당놀이패와 같은 잽이꾼들이 길놀이를 벌일 때에는 먼저 잽이를 일으키고 나서 '길군악7채'를 치고 행진(行進)하며 목적지에 당도하면 '녕길채' - '자진4채' - '원4채' - '3채' - '자진3채' - '2채' - '자진2채' - '1채' - '자진1채'로 돌리고 나서 '7채' 한마루 치고 '5채' 한마루 치고 마친다. 잽이꾼들이 좁은 자리에서 잠깐 칠 때에는 '자진1채' - '1채' - '자진2채' - '1채' - '자진1채'로 잽이를 일으키고 나서 '3채'로 넘어갔다가 일으키는 가락으로 다시 내려 가서 '길군악(7채)' 첫머리 치고 마친다. 잽이꾼들이 넓은 마당에서 마당놀이를 칠 때에는 먼저 잽이를 일으키고 나서 '5채'를 치고 '길놀이4채'를 치고 '3채'를 치고 '2채', '1채'로 넘어간다.

'12채'는 통상 치는 '1채' ~ '4채'에다 '울림5채', '6채', '7채', '8채', '9채', '10채', '11채', '12채'를 이어 치는 것이다. '울림5채'는 마당놀이 때 치는 '5채'와 같은 것이다.

'6채'는 '12채가락'에만 치는 가락으로 3분박 좀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 셋이 모여 12박자 한 장단이 되는 것으로 팽과리는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하고 치며 징은 12박자 가운데 1,3,5,6,7,9째 박에 1점씩 쳐 모두 6점을 친다. 이 가락을 '6채'라 함은 징

이 6점을 치기 때문에 보인다.<악보2-12>

‘7채’에는 ‘12채가락’에 치는 것과 길놀이 때 치는 ‘길군악7채’가 있다. ‘12채’가락에 치는 ‘7채’는 3분박 좀 빠른 4박자 넷이 모여 16박자 한 장단이 되는 것이다. 쟁과리는 “갠지갱, 개갱-, 갠지갱, 개갱-, 갠지갱, 갠지갱, 개갱-, 개갱-, 갠-개, 음개개, 갠-개, 개갱-, 갠-개, 음개개, 갠-개” 하고 치며 징은 16박자 가운데 1,3,5,6,7,9,13째 박에 1점씩 쳐 모두 7점을 친다. 이 가락을 ‘7채’라 하는 것은 징이 7점 들어가는 때문으로 보인다.<악보2-13>

‘8채’는 ‘12채가락’에만 쓰인다. 3분박 좀 빠른 4박자 셋이 모여 12박자 한 장단이 되는 것이다. 쟁과리는 “갠지갱, 개갱-, 갠지갱, 개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개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개갱-” 하고 치며 징은 12박자 가운데 1,3,5,6,7, 9,10,11째 박에 1점씩 쳐 모두 8점을 치는 것이다. 이 가락을 ‘8채’라 하는 것은 징을 8점 치기 때문에 보인다.<악보2-14>

‘9채’는 ‘12채가락’에만 쓰인다. 3분박 좀 빠른 4박자 넷이 모여 16박자 한 장단이 되는 것이다. 쟁과리는 “갠지갱, 개갱-, 갠지갱, 개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개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개갱-, 개갱-, 갠-개, 음개개, 갠-개” 하고 치며 징은 16박자 가운데 1,3,5,6,7,9,10,11,13째 박에 1점씩 쳐 모두 9점을 친다. 이 가락을 ‘9채’라 이르는 것은 징이 9점이 들어 가는 때문으로 보인다.<악보2-15>

‘10채’는 ‘12채가락’에만 쓰인다. 3분박 좀 빠른 4박자 다섯이 모여 20박자 한 장단이 되고 있다. 쟁과리는 “갠지갱, 개갱-, 갠지갱, 개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개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개갱-, 개갱-, 갠-개, 음개개, 갠-개, 개갱-, 갠-개, 음개개, 갠-개” 하고 친다. 징은 20박자 가운데 1,3,5,6,7,9,10,11,13,17째 박에 각각 1점씩 쳐 모두 10점을 친다. 이 가락을 ‘10채’라 하는 것은 징이 10점을 치기 때문에 보인다.<악보2-16>

‘11채’ 또한 ‘12채가락’에만 쓰인다. 3분박 좀 빠른 4박자 다섯이 모여 20박자 한 장단이 된다. 쟁과리는 “갠지갱, 개갱-, 갠지갱, 개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개갱-, 갠지갱, 갠지갱, 갠-개, 갠지갱, 갠-개, 갠-개, 음개개, 갠-개, 개갱-, 갠-개, 음개개, 갠-개” 하

고 치며 징은 20박자 가운데 1,3,5,6,7,9,10,13,17박에 1점씩 치고 11째 박에 2점을 쳐 모두 11점을 친다. 이 가락을 ‘11채’라 이르는 것은 징이 11점 들어 가기 때문으로 보인다.<악보2-17>

‘12채’는 ‘12채가락’만 쓰인다. 3분박 좀 빠른 4박자 넷이 모여 16박자 한 장단이 된다. 쟁과리는 “갠지갱, 개갱-, 갠지갱, 개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개갱-, 갠지갱, 갠지갱, 갠지갱, 개갱-, 갠지갱, 갠지갱, 갠-개, 갠지갱” 하고 치며 징은 16박자 가운데 1,3,5,6,7,9,10,11,13,14째 박에 각각 1점씩 치고 15째 박에 2점을 쳐 모두 12점을 친다. 이 가락을 ‘12채’라 이르는 것은 징이 12점 들어 가는 때문으로 보인다.<악보2-18>

일산지역에서 ‘12채가락’을 모두 치는 이는 극히 드물다. 이 가락은 특별한 경우에만 치는 특이한 가락이고 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김현규가 박동실에게 배웠던 것을 기억하여 근래에 고양지역 축제에서 발표한 바 있을 뿐이다. 박동실은 본디 남사당패 출신으로 지금 살았으면 115세 쯤 된다고 한다.<2>

5. 놀이패〔演戲集團〕

일산지역 주민들이 놀이패를 조직하여 직업적인 공연 활동을 벌인 일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백석리 두레패들이 들놀음을 간적이 있었는데 노는 자리에서 쟁이를 치고 노는 것을 인근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잘 논다고 자기 마을에 와서 놀아 달라고 하여 그 마을에 가서 집집마다 들려 마당놀이를 벌이고 고사소리를 부른 적이 있으나 이것은 한때 우연히 벌어진 일이었다 한다. 백석리 살던 장선환이 어깨너머로 배웠던 고사소리 ‘뒷엄불’을 잘 써먹은 적이 있다 한다. 일산지역에는 타지역에서 걸립패(乞粒牌), 남사당패(男社黨牌), 굿중패, 광대패(廣大牌), 굿패 따위 놀이패들이 와서 놀고 가는데 이들 놀이패들은 대개 ‘남선(南鮮)’에서 왔다고 한다.<1><2><3>

가. 걸립패(乞粒牌)

걸립패는 풍물을 치고 마을마다 돌며 고사(告祀)굿을 쳐주고 돈과 쌀을 걷어 가는 놀이패이다. 일산지역에는 봄 가을에 이런 걸립패가 남쪽에서 왔었다고 한다. 걸립패들이 풍물을 치고 「天上天下서낭大神」이라 쓴 서낭대를 들고 들어 와 집처마에다 걸쳐 놓고 풍물을 치고 있으면 집주인이 고사상(告祀床)을 마루에다 차려 놓는다. 걸립패 고사꾼이 고사상 앞에서 덕담(德談)이라 하여 고사(告祀)소리를 부른다. 걸립패들이 부르는 고사 소리에는 여러가지가 있다.<1>

나. 남사당패(男社黨牌)

성인남자들과 소년들이 풍물을 치고 들어 와 갖가지 곡예도 하고 놀이도 벌이는 놀이패를 남사당패라 하는데 일산지역에는 가을에 남사당패가 왔다고 한다. 큰 마을의 밭에다 포장을 치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낮에는 짚이(農樂)치며 무등 타고, 줄타고 놀고 밤에는 꼭두각씨놀음을 놀았다 한다. 이 가운데 무등 타는 것이 볼 만했는데 잘하는 패는 5동고리[5層舞童]도 댔다고 한다.<1>

다. 광대패(廣大牌)

회갑연(回甲宴)과 같은 큰 잔치를 벌이게 되면 광대패를 불러 온다. 회갑연에서는 아침에 자손들이 술을 올릴 때 먼저 짚이들이 삼현육각(三弦六角)을 치고 기생(妓生)들이 헌수(獻壽) 하고 창사(唱詞)를 불렀다고 한다. 자손들이 잔올리기를 마치면 기생, 광대가 소리하고 춤추고 놀았다 한다. 이와 같은 놀음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여느 사람들은 회갑연을 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짚이를 치고 소리하고 노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한다.

라. 굿중패

일산지역에서는 걸립패를 굿중패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와전으로 볼 수 있다. 탁발승(托鉢僧)들이 놀이패를 꾸며 마을을 돌며 시주(施主)를 걷는 놀이패를 굿중패라 하는데 뒤에 '절걸립패'라 하여 절의 위탁을 받은 걸립패들이 탁발승 대신 시주를 걷었기 때문에 걸립패를 굿중패와 혼동하는 것으로 보인다.<1>

<악보 1-1> 긴 모내기소리 김현규 창

하 나 로 구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둘 이 로 구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 엷 세 엷 에 에 에
네 이 로 구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섯

<악보 1-2> 자진 모내기소리 김현규 창

하 - 나 - - 하 아 나 하 나 리 로 구 구 구 나

<악보 1-3> 긴 소리 김현규 창

아 히 예 헤 예 헤-예-히 예 예 예 히 예 예 예
히 히 쏘 아 아 아 하 아 이 예 히 히
야 아 아 - 아 이 이 히 아 아 아 - - 아 아 아

<악보 1-4> 사두며 김현규 창

예 헤 예 예 예 헤-히 예 헤 예 헤 예
예 예 예 리 사 아 아 아 두며

장선헌창

<악보 1-6> 방아 타령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방아 타령' (Bang-a-tallyeong). The score is written on four staves in treble clef with a 12/8 time signature.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melody is simple and rhythmic, typical of traditional Korean folk songs.

어 엇 다 뒤엎 구나 일락은 서산에 해떨어지-고
 월출 도-오-옹 녀에 저달이 불쑥아-오오-문다
 어 헤 어 헤-오호 어 헤 어 헤 어 헤
 어야 뒤야 어 허야 하 아 하-아

<악보 1-7> 자진 방아 타령 김현규창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자진 방아 타령' (Jajin Bang-a-tallyeong) by Kim Hyun-gyu. The score is written on two staves in treble clef with a 12/8 time signature.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melody is more complex than the previous one, with some triplets and longer notes.

떨 다 떨 다 정월 이 타-대보름날에
 구 머리 장군-긴 코 배기 맥맥이 땀이-뻘 었다

<악보 1-8> 놀 놀이 김현규창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놀 놀이' (Nol Noli) by Kim Hyun-gyu. The score is written on two staves in treble clef with a 12/8 time signature.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melody is lively and rhythmic, with many eighth notes.

심 봉 - 사 아 에 에 에 거 동-을 보 아-라
 놀 놀 놀-놀 이 노 흥 오 호 놀 아

<악보 1-9> 자진 놀 놀이 김현규창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자진 놀 놀이' (Jajin Nol Noli) by Kim Hyun-gyu. The score is written on two staves in treble clef with a 12/8 time signature.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melody is more complex than the previous one, with some triplets and longer notes.

어 어 어 허 어 야-날 날 날 허리 어 리도 어 허야
 어 어 어 허 어 야-놀 놀이 소리는 삼구쑈소리세-

<악보 1-10> 날 날 날 상사도야

장선훈량

날 날 날 상-사 도-야 날 날 날 상 사 도-야
상 사 로 구 나 상 사 - 냇 네 날 날 날 상 사 도-야
무엇 이 그리 워 상 사 가 냇 소 날 날 날 상 사 도-

<악보 1-11>

훽 훽

김현규 창

우 후 야 하 훽 훽 우 야 훽 - 훽
우 - 야 소 리 되 - 기 받 게 우 후 야 훽 훽
수 옥 이 따 옥 이 창 동 이 기 력 이 우 후 야 하 훽 - 훽

<악보 1-12>

모든

장선훈량

에 헤이 여 라 - 모든 에 헤이 여 라 - 모든
뽕 뽕 돌아라 자 - 리 모든 에 헤이 여 라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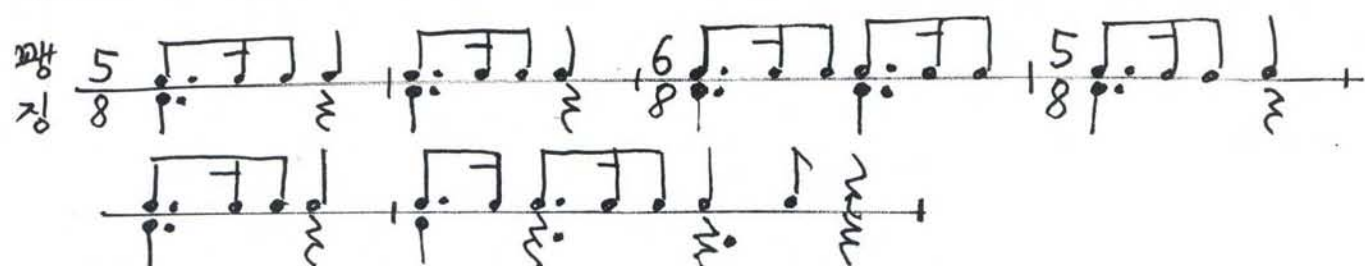
<악보 1-13>

오 해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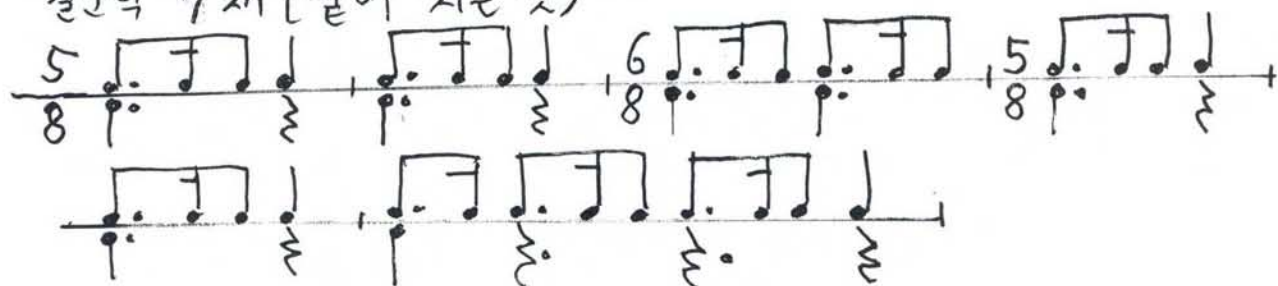
장선훈량

오 호 오 해 오 호 오 해
인 제 가 너 는 어 느 때 오 - 나 오 호 오 해
오 마 는 - 날 이 나 - 일 러 줄 주 게 오 호 오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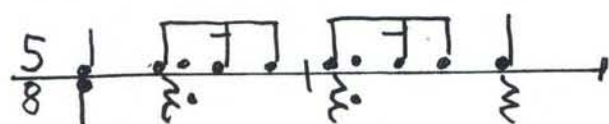
<악보 2-1> 7채 (끊어 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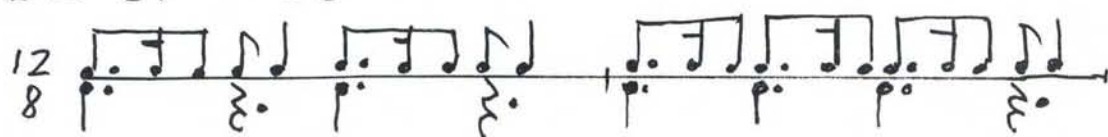
절군악 7채 (붙여 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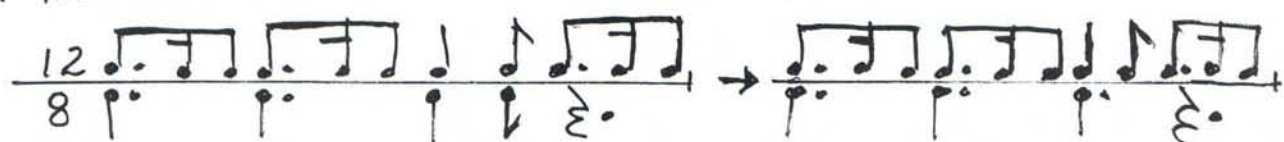
<악보 2-2> 넘길채



<악보 2-3> 마당놀이 5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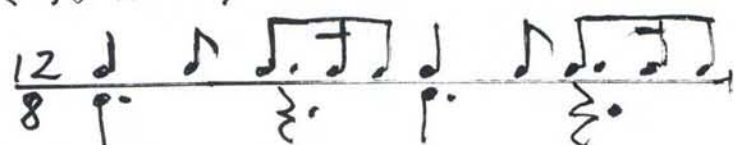
<악보 2-4> 왼 4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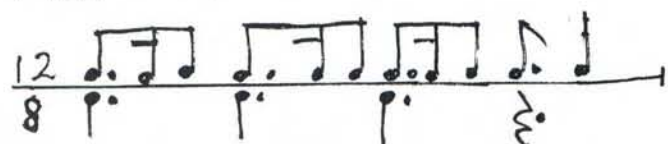
길놀이 4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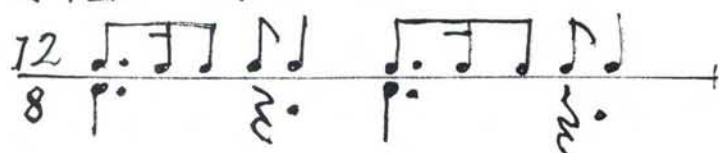
<악보 2-5> 자진 4채



<악보 2-6> 3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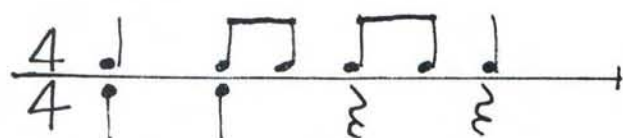
<악보 2-7> 자진 3채



<악보 2-8> 2채



<악보 2-9> 자진 2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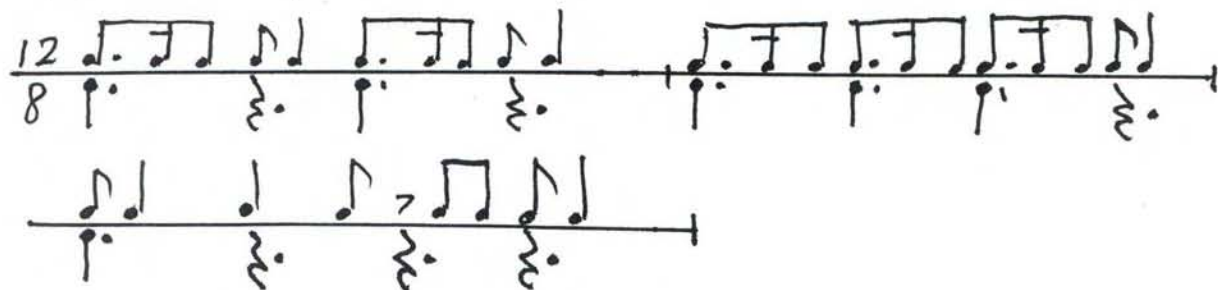
<악보 2-10> 1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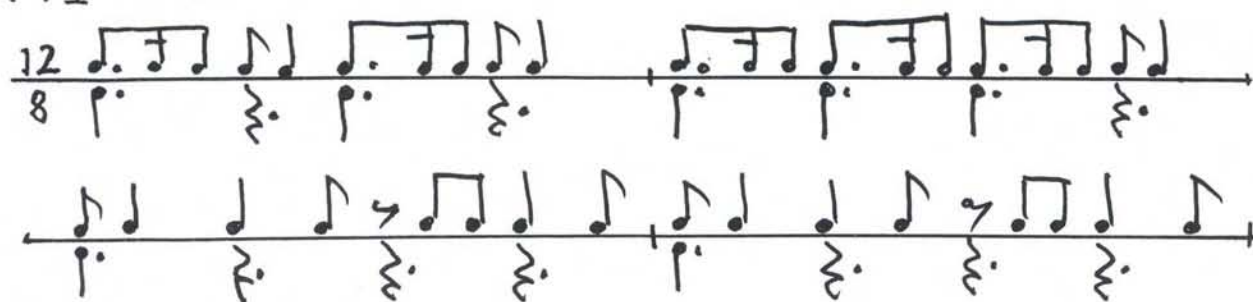
<악보 2-11> 자진 1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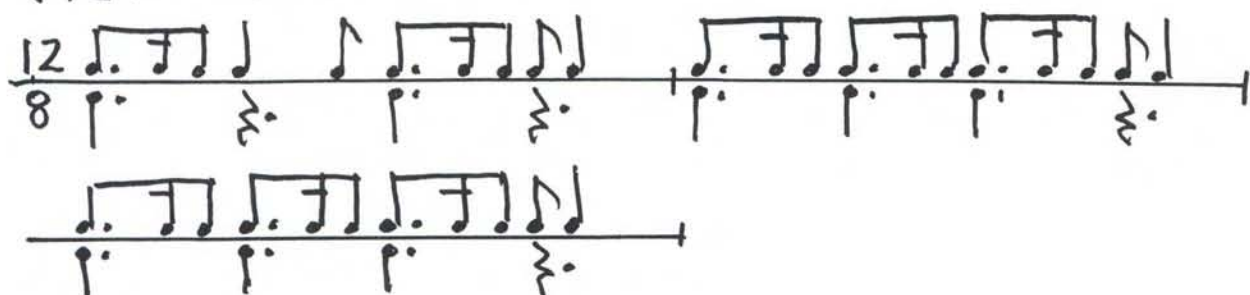
<악보 2-12> 6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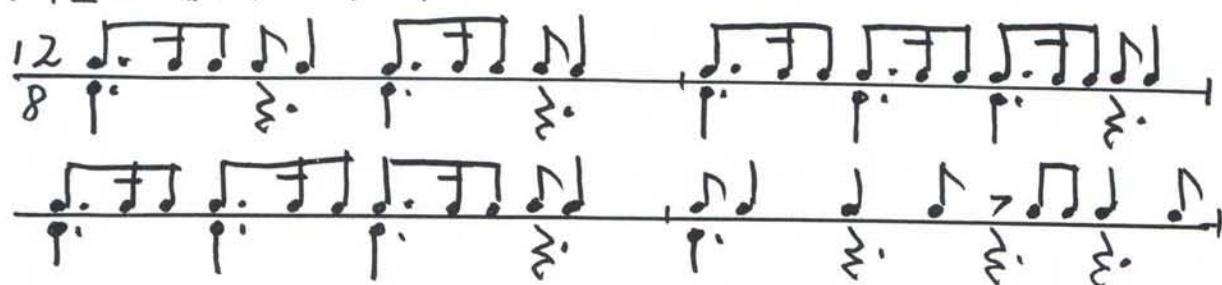
<악보 2-13> 7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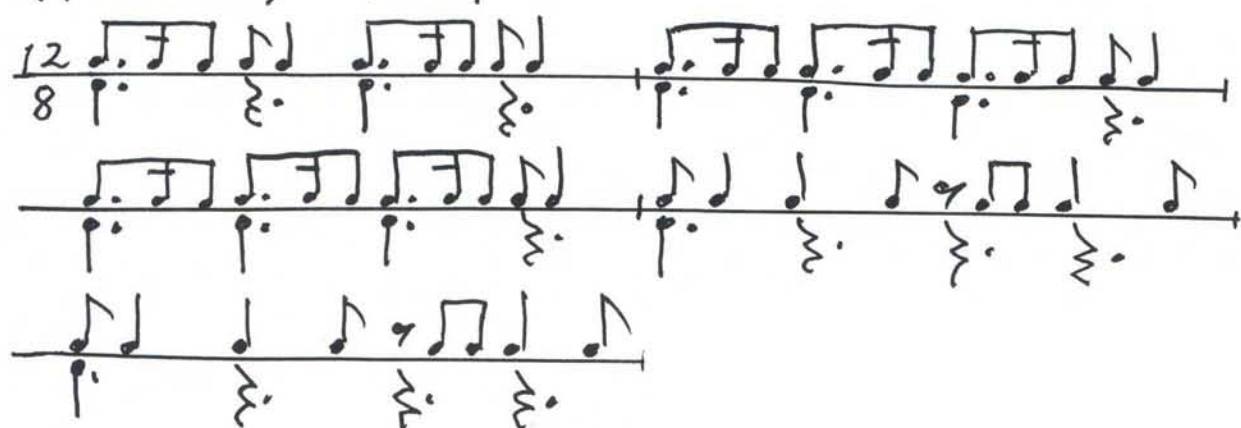
<악보 2-14> 8줄



<악보 2-15> 9줄



<악보 2-16> 10줄



<악보 2-17> 11채



<악보 2-18> 1 2 채

